"소방차에 길 터주세요" '안전점검의 날'인 4일 광주 북부소방서, 북부 경찰서, 말바우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합동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폭력 심각하다

발생건수 광주 전국 4위·전남 7위 … 사후조치도 미흡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폭력 발생 건수는 각각 537건, 247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 수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314명, 630명이었다.

발생건수로 광주와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고, 전국 발생건수(5605건)의 14%를 차지했다.

폭력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폭행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129건), 기타(18건), 상해(17건), 협박(15건), 따돌림(11건) 순이었다.

전남에서도 폭행(164건)이 1위를 차지했고 금품갈취(34건), 상해(14건), 기타(11건), 강요 및 성추행(10건), 협박(4건)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가해학생 1944명 가운데 대다수는 교내봉사(863명·44.3%), 사회봉사(356·18.3%), 피해자에게 서면사과(150·7.7%)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전학조치, 퇴학처분된 학생은 각각 96명(4.9%), 8명(0.41%)에 그쳤다.

한편, 전국적으로 교육당국이 1만1708명에 달하는 피해학생들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조언 8775명(74.9%)이 대부분이었고, 보호조치 584명, 일시보호 497건, 요양 4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임에도 전학권고(62명)나 학급교체(25건) 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북관계 '롤러코스트' … 광주·전남 새터민들의 심정

"北 소식만 나오면 가슴 졸여요"

지난 3월 23일 해군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하면서 남북관계는 해빙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대북 쌀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하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가 풀어지는 일들이 자주 반복돼 왔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직장 등에서 가슴 졸이는 생활을 반복하는 이들이 있다. 새터민들이다. 탈북한 뒤 광주에 정착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광주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하는 새터민 이미현(여·41·가명)씨는 최근 이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광주에 정착한 뒤 이 음식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돈을 벌어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희망도 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감싸주던 동료·손님들이 고마웠다. 색안경을 끼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주던 다정한 얼굴은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러나 이씨는 요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주변의 시선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은 잘해줘도 고마움을 모른다니까"라고 한 손님이 농담 삼아 던진 말은 이씨의 가슴에 가시가 돼 박혔다.

이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새터민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이씨는 "목숨 걸고 남한 땅을 밟았는데, 북한 관련 소식만 나오면 죄인 취급받고 있다"며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새터민 박해인(여·42·가명)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해 초 탈북한 뒤 광주의 한 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빠지는 날이 잦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씨는 광주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한 사람들보다는 경기도 등에 정착한 새터민과 자주 연락하며 지낸다. 서로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탓이다.

박씨는 "북한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나오면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도 없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가슴 졸이거나 움츠러드는 게 우리의 삶"이라며 "그나마 광주는 나은 편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새터민들의 경우 간첩 취급받은 경우도 더러 있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배경옥(여·44) 사무국장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이들은 이미 모두가 한 동포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지역 새터민 수는 모두 500여 명. 한 해 평균 100여 명씩 광주·전남을 찾아 정착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일고·광고·상일여고 자율형공립고 신입생 모집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고와 광주일고, 광주고 등 3개 학교가 일제히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생 모집에 나선다.

지역 첫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고는 6일 오후 6시 학교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갖는다. 학생은 광역단위(광주)로 선발하며, 학급당 30명씩 학년당 240명이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성적제한은 없다. 원서접수는 오는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이며, 같은달 2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고도 입학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7시 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2월21일부터 24일까지다. 학급당 30명씩 8학급, 240명을 뽑는다. 합격자 발표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광주일고는 지난 9월 15일 입학설명회에 이어 오는 11월20일께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증심사~원효사~소쇄원~안양산~용연마을

무등산 순환버스 뜨나

광주시 신설 검토

광주시가 무등산 일대를 순환하는 '(가칭)무등산 순환버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옛길과 둘레길 등 무등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로가 발굴·복원되고 있는 가운데 탐방객들이 주차장소에 상관없이 무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순환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무등산 순환버스는 무등산 증심사를 출발해 원효사~소쇄원~안양산휴양림~용연마을 등 무등산 권역 주요 지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무등산 순환버스의 타당성과 코스 등을 분석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증심사에서 무등산에 올라 화순 안양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차량 문제 때문에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며 "무등산 순환버스가 비록 작은 시책이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묘원 관리비 부당징수 21억 묘주에 반환

광주시가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제1시립묘지 관리비 21억원을 묘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1999년 10월 1일 이전 제1시립묘지 내 묘지를 분양받은 묘주가 신청할 경우 1기당 5만원의 관리비와 이자 3000원 등 모두 5만3000원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초 제1시립묘지 일부 묘주들은 지난 1999년 10월 '공원묘지 등에 관한 설치조례' 개정 전 시립묘지에 대해 영구사용권을 인정받은 묘주에게까지 관리비를 부당징수했다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기한 바 있다. <본보 1월18일자 6면>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반환을 최종결정했다.

반환대상자는 모두 3만7000여명이며, 광주시는 이들에게 줄 원금과 이자 등 모두 21억원을 확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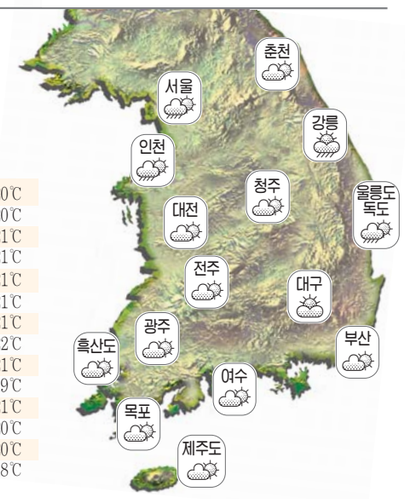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0분 해짐 18시 12분 / 달뜸 03시 16분 달짐 16시 19분

드높은 가을 하늘

흐린 후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광 주	흐린 뒤 맑음	13/20℃
목 포	흐린 뒤 맑음	14/20℃
여 수	흐린 뒤 맑음	15/21℃
완 도	흐린 뒤 맑음	14/21℃
구 례	흐린 뒤 맑음	11/21℃
해 남	흐린 뒤 맑음	13/21℃
장 흥	흐린 뒤 맑음	12/21℃
고 흥	흐린 뒤 맑음	13/22℃
순 천	흐린 뒤 맑음	13/21℃
영 광	오전 한때 비	12/19℃
진 도	흐린 뒤 맑음	14/21℃
전 주	흐린 뒤 맑음	12/20℃
남 원	오전 한때 비	10/20℃
흑산도	흐린 뒤 맑음	15/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11:56 --:--	05:13 17:27
여수	07:00 19:22	00:48 13: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 씨						
최저/최고	11/24	13/24	14/24	15/23	13/24	14/23

따뜻한 10월

광주·전남 맑고 고온현상 … 11월에 본격 추위

올 10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11월 초순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10월 말까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으며, 11월이 돼야 평년기온을 되찾아 추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은 10월 말까지 평년기온(12~17도)보다 높겠으나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은 평년(29~43㎜)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11월 초순께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내륙지방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18.3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으며, 쌀쌀한 날씨는 5일까지 이어지다가 6일부터 다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평년기온(낮 최고 21~24도)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